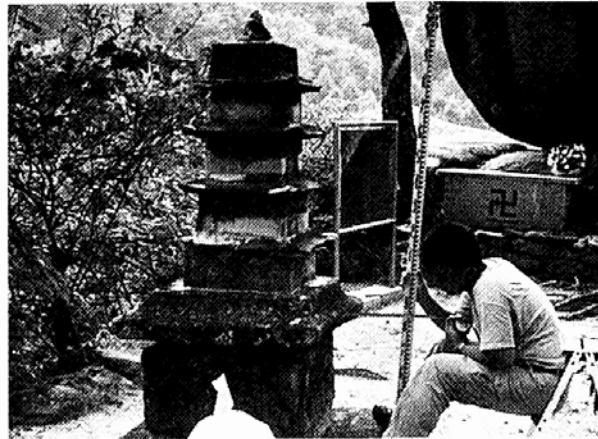


잇단 도난·훼손... '지키자' 강한 다짐

조계종 정보보존대책 '배경과 내용'

16일 발표한 '사찰문화재 보존과 도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불교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계종 총무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지는 정대 총무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보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찰에 있다. 앞으로는 정보를 잃어버린 사찰의 주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약했든 복장유물의 경우 도난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대규모 문화재매매단 사건 이후에도 이 달 초 파주 보광사와 경주 주사암 등에서 탕화와 복장유물이 털리는 등 비지정 불교문화재 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말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불교문화재 도난에 강력 대처를 지시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계종은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불교문화재 공동조사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월정사 말사인 미륵암에서 탑 실측조사를 하고 있는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의 모습.

도난문화재 회수율 5% 미만 비지정 문화재 실태 파악 시급 문화재 사찰 경비인력 확충

배경 조계종 총무원이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담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에는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의 도난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84년부터 99년 6월까지 불교문화재 도난건수는 316건 453점에 달한다. 99년과 지난해에만 모두 30건 57점의 불교문화재가 도난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4.8%가 비지정문화재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계 법령 미비 등으로 회수율은 5%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불상이나 불화 정도만 파

나오는 것도 종합대책 발표의 계기가 됐다. **보존대책** 사찰 소유 불교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의 실태 파악이다. 96년부터 매년 2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여온 조계종 총무원 문화재 지경진 38건 외에도 28건이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한 번도 전

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작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불교문화재 조사비 5억 원이 올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강원지역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2006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비지정 불교문화재의 경우 5~7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도난문화재 은닉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조항 신설, 선의취득 배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건립됐거나 건립 중인 23개 성보박물관 활성화 지원 대책과 불상 복장유물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

도난방지책 조계종 총무원은 '방법·방화업무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방화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찰은 자동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성보도난 및 화재사고 발생시 책임자는 중과실 또는 고의로 징계에 회부한다. 징계 회부는 승려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47조 17호, 48조 11호, 51조 7호)

총무원 교구분사의 관리 감독 강화 중앙총무기관의 장과 교구분사 및 사찰의 주지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방법·방화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방법·방화 관리자의 임명 등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모든 사찰의 경보 시설 설치 의무화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전통사찰 공사찰을 포함한 모든 사찰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범경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가군 사찰(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교구분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당사찰 관림료사찰)은 화상감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총무원은 이른 시일 안에 총무원의 검증을 받은 업체 또는 기기를 선정하고, 경보시설의 설치에 이들 업체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칙 강화 이 규정과 설계기준에 의한 관할 감독기관의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통보받고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찰의 주지는 직무유기 등으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또 방법·방화 조치를 게을리 하여 성보 도난 및 화재사고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승려법에 따르면, 성보로 도난당한 사찰의 주지에게는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nia.com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모든 사찰 6개월 이내 방법·방화시설 의무화

조계종, 입법예고 - 6월 시행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방법·방화업무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방화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찰은 자동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성보도난 및 화재사고 발생시 책임자는 중과실 또는 고의로 징계에 회부한다. 징계 회부는 승려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47조 17호, 48조 11호, 51조 7호)

총무원 교구분사의 관리 감독 강화 중앙총무기관의 장과 교구분사 및 사찰의 주지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방법·방화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방법·방화 관리자의 임명 등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모든 사찰의 경보 시설 설치 의무화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전통사찰 공사찰을 포함한 모든 사찰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범경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가군 사찰(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교구분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당사찰 관림료사찰)은 화상감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총무원은 이른 시일 안에 총무원의 검증을 받은 업체 또는 기기를 선정하고, 경보시설의 설치에 이들 업체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칙 강화 이 규정과 설계기준에 의한 관할 감독기관의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통보받고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찰의 주지는 직무유기 등으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또 방법·방화 조치를 게을리 하여 성보 도난 및 화재사고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승려법에 따르면, 성보로 도난당한 사찰의 주지에게는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nia.com



17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생명사상과 환경운동의 모색' 토론회.

"친환경적 사찰 만들자"

범불교 환경단체 준비위 '토론회'

설악산과 지리산을 잇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과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달 26일 출범 예정인 범불교환경단체는 어떤 생명운동을 펼치게 될까. 이 단체는 '지리산살리기' 담 백지화 범불교연대에 참여했던 50여개의 불교환경단체를 비롯해 각 지역의 환경 시민단체와 사찰이 모두 참여한다. 지역에 근거를 두는 풀뿌리 조직을 지향하

고 있어 도내 사찰들도 주변 환경 보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1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불교생명사상과 환경운동의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활동방향을 집중 논의하고, 전국의 사찰환경 네트워크를 구성해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문제에 대응하고 불교환경이념 정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지방 자치시대 이후 불교는 가장 큰 환경적 피해자로 등장하면서 사찰의 환경적 대응과 조직적인 환경운동의 필요성이 고조되었다"면서, "불교 환경운동은 사찰인구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성보와 가람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환경운동의 한계를 돌파하고,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백두대간 불교 생명 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 △산과 숲을 지키는 사찰 네트워크 구성 △친환경적 사찰을 만들기 위한 '사찰의제 21' 작성 △타종교 및 단체간의 연대활동 △불교 환경정보센터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치 △각종 불사 및 개발과 훼손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은 "불교 환경운동은 생명의 불성을 살리는 운동이자 깨달음의 시작"이라며, "사찰마다 일회용품 안쓰기, 분리수거, 무공해 비누 쓰기 등 지역 환경단체와 연대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목어

죽음부른 기숙학원

우리나라에 서구적이랄까 근대적이랄까, 아무튼 새로운 형태의 교육장이 들어선 것은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였다. 서당 대신 학교라는 이름으로 민족사에 등장한 학교는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다.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교육의 연관관계를 잃어버린 점이다.

학교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3위일체의 교육'이 말로만이지 실제로는 지금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구식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부모들이 모르는 내용을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학습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습지도가 될 수 없었고, 부모들의 광범위한 모인인 사회 또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인으로는 3위일체를 잃어 대지만 실제로는 일체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가정과 사회와 관련성이 적은 교육을 하다보니 전인교육을 할 수 없었고, 산업화 과정의 경제,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그 기능이란 것도 사회와의 연관성이 없어서 직장에서는 우수한 학습능력(7이 인정된 사람)을 뽑아서 재교육을 시키어야만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교육인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육에 발맞춰 가는 것이 특수학급, 특별학원 등의 시설이다. 이번엔 경기도 광주의 특별학원에서 화재로 변을 당한 학생들은 바로 그런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들이다. 그런데도 불이 난 방에 갇혀 있던 친구들을 구하느라 자신은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소식을 접하고는 인간의 송고함을 느낀다. 아마바처님의 무한 광경, 무한 생명이 함께 하길 바란다.

학교 교육에 관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진다는 것을 교육 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법현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소셜: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관 신축 원만성취발원 천일기도에 들어가며

감로사 제1차 관음백일기도 봉행

당 감로사에서는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회관 신축을 오래전부터 발원하여 오다가 이제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착공에 즈음하여 원만건축과 국민안 및 특히 신도님의 가정마다 소원성취와 만사형통을 위하여 백일기도를 10번 하면 천일기도가 됩니다.

이에 제1차 백일기도를 5월 25일(음. 윤 4월 3일)에 입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동안 미루어 오다가 삼천부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 발원하게 되었사오니 많이 동참하시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삼천배 참회기도 회관 불사가 원만성취되어 누구나 함께 참회기도를 하여 개개인이 성불하시기 바라며 권선합니다.

- 제1차 백일기도 입재 : 2001년 5월 25일 (음. 윤 4월 3일) 오전 10시
- 제1차 백일기도 회향 및 제2차 백일기도 입재 : 2001년 9월 1일 (음. 7월 14일) 오전 10시
- 입재 법문: 지관 큰스님 (가산불교문화원 원장, 전 동국대학교 총장)
- 백일기도 1인당 동참금 : 10만원 (지참물 : 공양미, 과일, 초, 꽃, 약간씩)
- 기도 동참시간 : 새벽 4시, 사시(10시), 저녁 6시
- 영가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동참계좌 : 조흥은행 409-04-472968 (예금주: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관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주지 혜 총 합장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전화 (051)809-0926, 팩스 803-0188